

미국 일시거주 한인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 촉진을 위한 인터넷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박 영 속 박 광 배 최 상 진 Antony Marsella 김 주 한
이화여자대학교 충북대학교 중앙대학교 University of Hawaii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미국 일시거주 한인 아동, 청소년의 미국 내 사회 문화적 적응 및 귀국청소년들의 재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인터넷 상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연구는 효과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검사로 미국내 한인 아동 및 청소년의 상담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 및 분야를 평가하는 과정이었고, 두 번째 연구는 파악된 상담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 및 분야를 기초로 개입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었다. 연구1에서 파악된 조기유학생의 상담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 및 분야를 기초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목표명료성,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성, 자신감, 자기주장성, 스트레스 등에서 통제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며 직접 면대면 프로그램을 받은 집단과도 거의 유사한 정도의 향상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담프로그램의 효과가 조기유학생들의 적응에 명백히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조기유학, 인터넷 상담, 문화적응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KRF-99-042-C00231)

† 교신저자 : 박 영 속,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E-mail : parkys@mm.ewha.ac.kr

IMF의 위기를 벗어난 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현재 한국에서는 서울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조기유학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 조기유학이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거나 한국 내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도피성 유학이던 것과는 달리 최근 들어서는 우수학생을 중심으로 선진 교육체제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며 돌아와서는 신흥 상류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도약형 유학이 늘고있는 실정이다. 2001년 현재 한국의 초·중·고 학생의 조기유학생의 숫자는 2만~3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에 따르면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매년 1만 명 남짓 해외로 나갔으나, 2000년에는 2만 여명이 되고 2001년과 2002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2002년 7월 30일자). 현재 미국 내에서도 한국학생들은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집단으로 1997년과 1998년 현재 일본(47,070), 중국(46,95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42,890), 전년도에 비한 증가율은 15.5%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민족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pen Doors, 1997/98).

이렇듯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하는 한국 청소년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문화적 적응을 손쉽게 완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기발전도를 도모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장기적 이익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한 반면, 부모에 이끌려서 또는 한국사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국에 가고, 그 결과 적응에 실패하여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면 그들의 이주와 거주에 소요되는 경비는 결국 낭비되고 말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국가적 신용에 누를 끼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 들어 1월에서 4월의 4개월 동안 유학·연수비용 명목으로 해외에 빠져나간 돈은 3억 997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억 7140만 달러에 비해 47% 증가했다고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조선일보 2002년 7월 30일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하는 한국인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귀국한 청소년들의 적응과 재적응을 위한 개입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 및 지속적 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그것이 성공했을 경우 나타나는 기대효과는 단순히 미국의 조기유학생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사한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를 하는 유학생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지닌 분야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기유학생들을 위한 개입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인 개입 프로그램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였다. 왜냐하면 조기유학생들은 어느 한 지역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렇게 널리 퍼져있는 대상에게 단일한 개입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발달된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의 등장은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광범위한 대상에게 적응촉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현재 사이버상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이버 강좌들 및 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e-비즈니스 또는 컴퓨터를 통한 고객관리 방식(CRM) 등의 활성화 등이 바로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및 인간관리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으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조기유학생들의 적응촉진 문제를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구1에서는 조기유학생

들의 상담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 및 분야를 파악하였고, 연구2에서는 조기학생들의 적응을 촉진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미국 내 한국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

미국 내에서 한국인들은 미국 내 소수민족 중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멕시코인 등 비자발적으로 미국에 오게 된 소수민족과는 달리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또는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미국에 가는 자발적 소수민족으로, 미래의 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사회적 계층상승을 꿈꾸는 집단이며, 적응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하나의 장애로 인식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학업수준도 비교적 높고 미국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측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다 (Ogbu, 1987). 그러나 아무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 선택하여 미국에 갔다 할지라도 강한 성취동기 하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문제들은 재미 한국청소년들의 적응을 방해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지속하게 하고 처음 떠날 때 가졌던 성취동기마저 꺾어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가족문제, 문화적응문제, 재정문제, 학교문제, 인종차별, 건강문제, 그리고 대인관계문제 등 매우 다양한 문제들을 들 수 있는데 (Akka, 1967; Heikinheimo & Shute, 1986; Ebbin & Blankenship, 1988; Leong & Sedlacek, 1989; Parr, Bradley, & Bingi, 1992; Sadowski & Plake, 1992; Maha, 1994; Ownbey & Horridge, 1998;), 본 연구에서는 주로 다섯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조기유학생들의 적응문제를 다루었다. (1) 학교 적응의 문

제, (2)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 (3) 문화 적응의 문제, (4) 법문화와 관련된 문제, (5) 부모자녀 관계 문제 등이다.

학교적응

학교적응의 문제는 미국에 처음 도착한 후 1.5세대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문제 중 가장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미국에 도착하게 되면 언어의 차이, 사회적 규범의 차이, 법률의 차이, 그리고 가정과 사회간의 이중적 가치 등으로 인하여 각종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Stafford, Marion, & Salter, 1980; Leong, 1984), 이 모든 문제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빠르고 효율적인 학교적응을 방해한다. 그 중 학교적응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은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교실에서 토론을 하고 시간표를 짜고,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 학생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에 처음 도착한 한국 학생들은 언어를 완전히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실에서 질문에 답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오랜 기간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을 위하여 읽어야 하는 많은 분량의 자료도 잘 읽지 못하게 된다 (Constantinides, 1992). 그 결과 교실에서 교사나 동료들로부터 매우 수동적이고 수줍은 아이로 보이도록 행동을 하기 쉽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학업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언어구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미국의 학생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한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Ojano Sheehan & Pearson, 1995).

학교적응과 관련되어 한국학생의 교육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교육체계를 들 수 있다.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자기주장을 가치 있게 여기는 미국 문화에 접하게 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계 학생들은 당황하게 된다(Constandinides, 1992; Parr et al., 1992). 아시아 문화에서 교사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교사가 자신에게 무엇을 할 지, 무엇이 진리인지 말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대부분 교실에서 말을 하지 않고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암기하려다가 방대한 양의 자료에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학생들은 “passive-methodist(수동적이고 체제를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라 불리는데, 이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조용하고 비주장적이며 체제나 규칙을 매우 잘 따르며 꼼꼼하다는 고정관념을 말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교실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들의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Hideko & David, 1985). 더구나 유학을 간 학생들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잘 알지 못할 수 있다(Ojano Sheehan & Pearson, 1995). 즉, 학생들이 한국의 교사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바에 익숙해져서 미국의 교사들도 같은 것을 기대할 것으로 생각하여 미국의 문화적 상황에서 상식이나 예측을 벗어나는 엉뚱한 행동이나 본의 아니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지각의 피드백 기능에서 Sullivan(1953)이 지적했듯이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피드백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데, Rosenberg(1979)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을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교사, 친구, 또래의 순이었다. 그러나 유교문화권에서는 보통 교사가 전통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여, 교육문제에 있어서 부모는 교사를 존중하게 되고 따라서 부모보다 교사가 더 의미 있는 사

람이 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한국인들이 학교에서 겪게 될 문제는 너무나도 확연하다. 교사가 이러한 아시아권 문화의 배경을 이해하고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으로 학생들을 보았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일 교사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한국 학생들이 언어적 표현이 부족하고 교육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상을 지적으로 열등하다거나 의욕이 부족하다거나 무능한 것으로 인식한다면, 교사의 기대가 그대로 학생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므로 그 영향은 청소년의 적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학생이 교사의 기대를 지각하고 내면화시키며, 학업성취가 이러한 인상을 반영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Anderson, 1982; Beane & Lipka, 1984; Brophy & Good, 1974).

따라서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학업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들을 다루어야 함과 동시에 교사와의 관계, 학교에서의 태도 등을 본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외국에 사는 학생들은 인종차별, 언어문제, 음식문제,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 외로움 등과 같이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면하게 되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경험한다. 친숙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불안, 혼동, 우울 등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긴장, 외로움, 불면증, 신체적 질병, 학업에 대한 문제 등을 유발한다. 외국에 가서 조기 유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영어능력의 부족은 단순히 학업측면의 문제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교사마다 모두 다른 액센트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고 강의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참여를 꺼리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시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작문하는 데에도 어려

움이 있기에, 학교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이 그대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Lin & Yi, 1997).

학업적 요구, 지지기반의 변화, 미국의 관습 및 문화에 대한 친숙성의 부족, 향수병 등은 미국 내 국제학생을 소외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모국의 음식을 그리워하고 집에 돌아가는 백일몽을 꾸게 한다. 또한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행불안,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되며, 동기의 저하, 게으름, 나쁜 학습습관, 주의집중 곤란, 흥미 또는 의욕 상실, 자기-존중감 저하, 짜증이나 분노 등을 호소하는 것이 보통이며 심한 경우는 수면 장애, 섭식장애, 피로, 위염, 두통 등과 같은 신체화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학생들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가 보기도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주로 심리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 Hurh, 1993).

실제로 Ebbin과 그의 동료들이 47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측정해본 결과,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의 학생들에 비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들, 예를 들면, 불안, 위염, 두통, 변비, 불면증, 우울증, 흉부통증, 복부통증, 위궤양 등에서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다(Ebbin et al., 1988). 그러나 유학생의 경우 신체화 장애 뿐 아니라 부적응이나 정서적 심리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McMichael & Hetzel, 1974; Offer & Spiro, 1987)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다(McMichael & Hetzel, 1974; Ogltree, 1993). 이는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건강에 대한 신념이나 태도, 영양, 위생, 재정적 조건이 다르기도 하며,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을 꺼리는 태도 등의 이유 때문으로 보고 있다(Ebbin et al., 1988). 그 이외에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

야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Oliver, J. M., Reed K. S., Katz, B. M., & Haugh, J. A., 1999). 특히 도움요청행동에서 커다란 성차가 존재하는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하여 도움요청에서 매우 소극적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더 심한 무지를 보인다고 한다(Cook, 1984; Rule & Gandy, 1994; Delphin & Rollock, 1995).

이렇듯 많은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며 가능한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미리 교육을 통하여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예상과 준비과정이 필수적인 부분임이 자명하다.

문화적 적응

새로운 문화에 접하게 되면 이른바 “문화적 충격(cultural shock)”을 경험하게 된다. 문화적 충격이란, 1958년 처음 사용된 용어로, Guanipa(1998)는 문화적 충격을 “다른 나라나 다른 환경에 접했을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정서적 불편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한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접했을 때 나타나는 불안감을 말하는 것으로 이 용어는 방향감의 부족, 새로운 환경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무엇이 적절한 것인지 무엇이 부적절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화충격은 새로운 환경에 도착한지 첫 몇 주 후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전에 생활하던 방식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더 이상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든 것이 원래 있던 곳과는 다르기 때문에 야기되는 불편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슬픔, 외로움, 우울증, 건강에 대한 지나친 관심, 통증, 알레르

기, 불면증, 기분의 변화, 무기력감, 분노, 짜증, 원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회피, 정체감 상실, 모국에 대한 이상화, 자신감 부족, 단순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함, 부적절감과 불안감, 새로운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 발달, 가족에 대한 그리움, 상실감 등이 있고,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증상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¹⁾.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느끼게 되는 문화적 충격 및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은 주로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문화적 배경 및 기본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심리적 불편함이다. 그런 이유로 싱가포르, 네팔,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계 학생들의 경우 미국의 생활에 대해 인간관계가 매우 피상적이고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이라고 비판을 한다. 즉 개인의 독립성을 대가로 친밀감이 상실되고 있으며,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Liberman, 1994).

특히 어느 정도 성장하여 자아를 확립한 대학 이후의 유학과 달리 조기유학생들은 그러한 문화적 차이가 성격형성 및 적응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등 비교적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게 되는 조기유학생들의 경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결정적 시기에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심한 혼란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게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모국에서 사용하던 규범에 의존하는 것이 더 이상 적절한 행동방식이 아님을 깨닫고 동일시 집단에 대한 혼란이 생기면서 문화적 적응의 문제와 학업 및 자아성취의 문제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가지게 된다(Stafford, Marion, & Salter, 1980; Abadzi, 1980; Leong, 1984; Agarwal & Winkler, 1985; Miller & Winston, 1990). 이러한 조기유학생들의 발달적 특성은 가치관이나 성격 측면에서 아직 확고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반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Chung & Pardecck(1997)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다른 소수민족보다 더 편협된 경향이 강하고, 사업을 할 때에도 한국어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집단이 소외감을 느끼도록 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미국인들이 다른 아시아계 보다 한국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덜 갖기를 원한다고 한다 (Bogardus, 1968; Hurh, 1977). 게다가 한국인들의 경우는 보통 가정에서 한국어어를 사용하고, 주로 접촉하는 대상도 한국인 친구나 친척, 이웃, 아니

1) 단계별로 보면,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접하고서 매우 기뻐하고 흥미로워하는 시기로 “허니문 단계”라고 불린다. 이 단계에는 접하게 되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이 난다. 그러나 그 시기가 조금 지나서 시간이 흐르면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고 위기를 겪는다. 예를 들면, 언어상의 문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불만족스럽고 분노와 슬픔을 느끼게 되는 등 상실감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생겨서 즐거움을 되찾는 시기로 심리적 균형을 느끼기 시작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환경에 좀 더 친숙해지고 소속되고 싶어한다.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문화가 주는 장단점을 모두 소화해서 둘 또는 세 개의 문화를 통합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이 때 사람들은 자신을 정의하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한다. 마지막 단계는 “재입국 충격(re-entry shock)”으로 모국에 돌아가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을 말한다. 모국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고 따라서 예전에 사용했던 방식들이 유용하지 않은데서 오는 충격이다. 이러한 단계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어떤 단계가 좀 더 길 수도 또는 짧을 수도 있다. 이러한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 성격유형, 이전의 경험, 사회경제적 조건, 언어에 대한 친숙성,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체계, 그리고 교육수준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Guanipa, 1998).

면 교회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미국인과 접촉하며 영어를 배울 기회가 적다(Kim & Hurh, 1993). 따라서 자기노출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언어도 비교적 빨리 배우지 못하며, 주로 같은 한국인들과 접촉을 하는 미국 내 한국인들의 상황은 조기유학생들의 적응을 더욱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조기유학생들의 문화적응을 위하여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표정이나 제스처 등 사소한 생활습관에서의 문화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부적응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Jensen & Jensen, 1983). 얼핏 사소하게 보이지만, 부적응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습관의 문화차이는 시간약속의 철저함, 수업중의 받아쓰기, 출석, 학급활동의 참여, 성고정관념, 대화 중 눈맞추기, 마감일 지키기, 시험태도(부정 행위), 일상용어의 사용, 연장자 우대, 이웃의식, 식사테이블 매너, 등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로 자기 주장성에 대한 문화적 가치와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Fukuyama & Greenfield, 1983). 특히 아시아 각국의 학생들은 참고, 인내하며, 양보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반면, 그러한 자세와 절제를 미국학생들은 사회적 열등의식, 불안감 혹은 자신감의 부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Pedersen, 1976; Alberti, 1977). 따라서 동양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비주장성은 의외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즉, 스스로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과 문제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표현하지 않고, 그러한 문제들을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공식적인 루트를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화되고, 중국에 가서 그것이 표현되었을 때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Sue & McKinney, 1975; Sue & Sue,

1977). 미국문화에서 적응에 도움이 되는 자기주장성은 무조건적이고 막무가내의 자기표현이나 욕구분출이 결코 아니며, 고도의 행위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요구하는 매우 미묘한 자기표현능력과 방법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청소년들에게는 자기주장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문화, 해석, 시각, 그리고 방법 및 기술을 정확히 습득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주장성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중요한 요소는 소위 “자기개방 (self-disclosure)”에 대한 문화차이다. 자기개방성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양학생들의 사회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Chen, 1994). 특히 자기개방성은 대화기술, 상호작용 매니지먼트, 대화기법, 등과 밀접히 연관되는데(Gudykunst, Hammer, & Wiseman, 1977; Ruben, 1977; Kim, 1988; Spitzberg, 1989), 유교문화 전통에서 성장한 동양청소년들은 그러한 자기개방성이 극히 약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유교문화가 “이심전심”에 의한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말로서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천시하는 전통을 가졌기 때문이다 (Yum, 1988; Tsujimura, 1987). 따라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양청소년들은 대인관계상황과 대화상황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자기개방 및 자기표현을 하는 방법과 정도를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법문화

미국은 개인주의적 문화로 자유주의에 그 배경을 두고 있고, 한국은 집단주의적 문화로 유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는 비단 사회적인 가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두 나라의 법이나 규정에 대한 가치관 역시 다르다. 법과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도화되었다. 이것들은 어떤 세력이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개인에게 간섭하지 못하게 엄격한 규제를 한다. 이것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방어할 수 없으며, 힘이 없는 사람들(예를 들면, 소수 인종, 어린이, 장애인)의 복지를 보호해준다. Lee(1991)는 “권리는 전형적으로 강제적이고, 한정적이며, 구속력이 있는 규범적인 범위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적이고 기본적인 이해의 범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제도화된 권리들은 미국 개인주의의 초석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유교적 입장에서는 공동운명을 강조하는 귀속적인 관계에 의해 구속을 받고 자신의 이익에 앞서 다른 사람과 집단의 이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사회조직적인 관점에서 개인은 자신의 귀속적인 역할을 통하여 상호관련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의무는 개인의 역할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은 체면을 잃게 된다. 양보와 타협은 역할을 근거로 하고 덕을 근거로 한 정의의 개념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사회질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했을 때 유지된다. 제도는 가족의 연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온정주의와 법적 도덕주의는 최상의 지배원리이다. 군주는 가부장적이고 도덕적이며, 아버지와 같은 인물로 여겨진다(김의철, 1997).

이렇듯 기본적으로 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시아적 가치로 해결을 할 때,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법문화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음으로 인하여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기본적인 법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자녀관계

미국 내 한국 청소년들이 학업과 관련된 또 하

나의 중요한 문제는 학업에 대한 부모의 압력이다. Sandefur(1998)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아메리카 인디언, 흑인, 히스패닉, 백인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고 한다. 예를 들면, 아시아계 학생들의 경우 자녀의 학교활동에 대한 어머니의 모니터 비율이 백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86.5%), 아버지의 모니터는 가장 높았고(83.5%), 부모와 대화도 가장 많이 하고(68.6%), 어머니가 학생의 대학졸업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8.6%) 자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백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79.9%). Irving & Sigel(1988) 역시 아시아계의 양육 방식은 아시아 아이들의 학업적 성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다른 연구자들도 아시아계 아이들의 성취가 특별히 어머니의 기대와 신념과 관련될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Bacon & Ichikawa, 1988).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님의 관심과 기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언어부족과 교육체계에 대한 지식의 부족 그리고 교사가 기대하는 바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기의 교육을 위해 이민을 오거나 자기를 따라와서 뒷바라지를 하는 등 회생을 한다는 강박관념은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잘 극복한 경우는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적응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부모의 압력 문제로 역시 조기유학생들의 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청소년들은 학교적응문제, 사회적·심리적 스트레스, 문화 적응의 문제, 법문화와 관련된 문

제,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고 극복하는 것이 유학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우선 연구 1에서 조기유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에 접하면서 적응 초기 겪게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밝혀내기 위하여 조기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개입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조기유학생, 미국 이민자의 자녀 중 1.5세, 그리고 유학생의 자녀들이 새로운 문화에 접하면서 적응 초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및 그들이 귀국하여 역으로 본국문화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평가하여 적절한 개입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방 법

조기유학생, 미국 이민자의 자녀 중 1.5세, 귀국유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에 접하면서 적응 초기 겪게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나는 면접이었고, 다른 하나는 설문조사 방법이었다.

조사대상

면접조사대상

면접조사는 본 연구진이 방미하여 미국 내의

청소년 조기유학생과, 한인 이민자녀, 미국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인 교사회 소속 교사들, 그리고 미국 내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직접 인터뷰하였다. 청소년 조기 유학생을 면접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2000년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뉴욕과 하와이를 방문하여 미리 섭외한 조기 유학생 총 21명을 직접 인터뷰하였는데, 연구자들이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하여 미리 제작한 인터뷰 프로토콜을 기초로 면접하였다. 또한 뉴욕의 한인교사회에 소속되어있는 한인교사들 5명과 면접으로 미국내 한인 청소년들이 겪고있는 문제점 및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들을 자유토론 형식으로 논의하였고, 뉴욕에서 현재 한인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4명으로부터 조기유학생과 이민 청소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설문조사대상

설문조사의 대상은 미국 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 조기유학생과 미국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귀국유학생 모두 합하여 총 58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청소년 조기유학생은 뉴욕에 있는 6개교(Bayside, Newtown, Francis, Cardozo, Flushing, 189 Junior High School)의 총 36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175명은 남학생이었고 183명은 여학생이었고, 나머지 4명은 성별을 표시하지 않았다. 연령은 11세부터 20세까지 분포하였다. 각 학교는 한국 학생이 대략 200명에서 500명 정도 분포하고 있는 학교였고, 한 학년에는 적게는 10명에서 100명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15년까지 분포하고 있었는데, 1년 된 학생이 전체 중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2년 된 학생이 87명, 3년 된 학생이 56명, 4년 된 학생이 32명, 5년 된 학생이 23명으로 전체 응답자중 94.5%의 미국 거주기간이 5년 이하

표 1. 설문조사에 참가한 조사대상자 수

집단	빈도	퍼센트(%)
조기유학생	362	65.3
미국청소년	67	11.5
귀국청소년	152	26.2
전체	581	100

였다. 비교집단으로서 미국청소년들도 설문조사를 하였다. 미국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의 6개교(Bayside, Newtown, Francis, Cardozo, Flushing, 189 Junior High School)에서 총 6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는데, 이 중 32명은 남학생이었고 35명은 여학생이었으며 연령은 12세부터 20세까지 분포하였다. 인종은 백인이 4명(6.0%), 히스패닉이 16명(23.9%), 아시아인이 47명(70.1%)으로 대부분이 아시아계의 미국인이었다. 귀국 청소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온 청소년 1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73명은 남학생이었고 78명은 여학생이었으며 1명은 성별을 표시하지 않았다. 연령대는 다른 집단보다 약간 높은 편이어서 16세부터 20세까지 분포하였다. 따라서 설문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아래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조기 유학생 362명, 미국 청소년 67명, 귀국 청소년 152명으로 총 581명의 청소년이었다.

절차

면접조사절차

미국 내의 청소년 조기유학생과, 미국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인 교사회 소속 교사들, 그리고 미국 내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자들이 직접 뉴욕과 하와이의 호놀룰루를 방문하여 심층 면접하였다. 뉴욕에서의 면접은 총 4회기였는데 미국 내 청소년 조기유학생(12명), 뉴욕시 한인 교육위원(4명), 한인교사가(1명) 그 대

상이었다. 학생들의 경우는 '삼원각'이라는 중식집에서 약 1시간 정도에 걸쳐서 면담을 하였고 한인 교육위원들은 '남가'라는 중식집에서 1시간-1시간 반에 걸쳐 자유토론을 하였으며, 한인교회 회장과 교사의 면담은 뉴욕제과에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하와이에서는 여학생 5명, 남학생 4명, 총 9명이 6회에 걸쳐서 면접에 참가하였다. 원활하고 심도 깊은 진행을 위하여 인터뷰에 3명 이상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처음에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다가 자연스럽게 학교 다니기 재미있는지를 물어보면서 면접을 시작하였다. 연구자가 주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교회내의 독립적이고 조용한 방에서 한 팀 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에 걸쳐 면접을 실시하였고, 선물이나 보상은 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 교사는 아니지만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학원교사를 하와이대 구내식당에서 만나 유학 청소년들의 실상에 대해 심도 깊은 면담을 하였다.

설문조사절차

미국 내의 청소년 조기유학생과, 미국 청소년, 귀국 청소년 등 모두 세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되,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해당학교에 공식적인 서신을 보내고 학교측의 승낙을 받은 후 담당 교사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공식적 승낙이 있는 후 미국 내에 있는 연구보조자가 설문대상에서 밝힌 6개교로 가지고 가서 담당교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직접 배부하고 2-3일 후 담당 한인교사가 회수한 것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하였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설문 배부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설문 내용은, 세 집단 모두 당초 상담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 및 분야조사를 하기로 계획했던

다섯 개 영역, 즉, 학교영역, 심리/사회적 영역, 문화적응 영역, 법문화 적응 영역, 가정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특정 집단에서 무의미하거나 그 집단의 현실상황에 부적절한 문항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모든 집단에서 문항이 동일하지는 않았다.

결 과

면접조사의 결과

조기유학생들의 상담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 및 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기유학생 및 이민 자녀 등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면접을 실시한 결과, 학교적응 영역,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영역, 문화적응 영역, 법문화 영역, 부모자식관계 영역 등 다섯 개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문제들이 파악되었다.

첫째로 학교 영역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교우관계에서의 갈등이었다. 이들은 미국인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는 한국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한국인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와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고를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적고, 삶은 면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지속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우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습득시킬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는 언어 문제로 한국 청소년들이 쓰기 와 읽기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말하기와 듣기는 자신이 극복하기 매우 어려

운 것으로 느끼고 있었고, 그 중 특히 말하기는 단시일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학급 동료들은 한국학생들의 발음을 듣고 웃거나,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소집단 과제에서 한국학생들을 제외시킨다거나, 대화를 할 때 한국 학생을 무시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보여 언어로 인한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이 동료 미국학생들로부터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언어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능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의 제시와, 언어능력의 부족을 자신에 대한 평가절하와 무가치감으로 연결시키지 않도록 심리적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함께 병행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세 번째는 학교자체와 관련된 것으로, 면접에 응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국의 학교체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때의 상황이고, 초기에는 누구나 학교의 수업시스템 자체가 한국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학교생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의하고 의지할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학교문제를 부모님과 전혀 상의할 수 없고 자신보다 조금 먼저 온 한국학생에게 의지하거나 모든 것을 혼자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유학 초기에 학교의 체제에 대해 명확하게 교육을 시켜 준다면 훨씬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다.

다음으로 면접에서 파악된 심리/스트레스 영역의 문제를 보면, 심리/스트레스 영역은 따로 독립된 영역이라기보다는 다른 영역의 문제와 함께 얹혀있는 부분으로, 언어나 문화의 문제 또는 실제 현실상황에서 매순간 경험하게 되는 각종 문

제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그냥 참고 인내하거나 한국 친구들끼리 서로 위로를 해주면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조기 유학생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다루어 줄 수 있는 전문적 상담이 요구됨을 나타내었다.

문화적응 영역을 보면 미국의 문화나 예절 및 상식에 대하여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실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미국의 친구들과 사귀는데 있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벽을 매우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리 미국 문화에 대하여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

학교생활

학교생활과 관련된 상담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 및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들, 즉, 성적, 교육 방식 및 교사에 대한 태도, 시험공부를 하는 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우선 조기 유학생, 미국 청소년, 귀국 청소년의 성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B를 받는다고 보고한 학생이 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A, C, D의 순으로 성적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집단별로 보면, 모든 집단이 A, B, C 중에 속하고 B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귀국 청소년들은 특히 A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학교성적에서의 집단차이는 주로 귀국청소년 집단과 나머지 두 집단의 차이로 보였다(표 2. 참조).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세 집단 모두 보통이나 만족스러운 편, 또는 매우 만족스

러운 편이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교우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족스러운 편이라거나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가 미국 청소년에서는 극히 드물었지만, 조기 유학생과 귀국청소년의 경우, 비록 큰 빈도는 아니지만 미국 청소년에 비해 많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조기 유학생이나 귀국 청소년들이 미국 학생들에 비해 친구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교사의 인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세 집단 모두 보통, 만족스러운 편, 또는 매우 만족에 응답을 하여 대다수는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경우도 친구에 대한 만족과 마찬가지로 미국 청소년은 매우 불만족스럽다거나 불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총 9명으로 전체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빈도였던 반면, 조기유학생과 귀국 청소년들은 더 많은 불만족스러움을 표현하여, 역시 교사와 학생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미국 청소년들에 비해 부족할 가능성과 한국 학생들이 새로 경험하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조기 유학생들은 미국의 교사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귀국 청소년들은 한국의 교사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같은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대부분은 보통, 만족스러운 편, 매우 만족스럽다 라고 응답했지만 조기 유학생과 귀국 청소년의 경우 매우 불만족스럽다거나 불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미국 청소년에 비해 많았다. 이것도 역시 각각 조기유학생들은 미국 방식에 대해, 귀국 청소년의 경우는 한국의 방식에 대해 각각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지표라고 보여진다.

표 2. 학교생활 관련 문항의 집단별 빈도(퍼센트) 및 차이검증

문항	항목	조기유학생	미국청소년	귀국유학생	전체	χ^2
성적	A	65(19.2)	14(23.7)	78(52.7)	157(28.8)	82.44**
	B	153(45.1)	17(28.8)	53(35.8)	223(40.8)	
	C	86(25.4)	18(30.5)	15(10.1)	119(21.8)	
	D	19(5.6)	8(13.6)	2(1.4)	29(5.3)	
	E	4(1.2)	2(3.4)	0	6(1.1)	
	F	12(3.5)	0	0	12(2.2)	
	전체	339(100)	59(100)	148(100)	546(100)	
친구와의 관계만족도	매우 불만족	8(2.2)	2(3.0)	3(2.0)	13(2.3)	35.00**
	불만족스러운 편	18(5.1)	0	19(12.5)	37(6.4)	
	보통	134(37.6)	31(47.0)	49(32.2)	214(37.3)	
	만족스러운 편	146(41.0)	27(40.9)	41(27.0)	214(37.3)	
	매우 만족	50(14.0)	6(9.1)	40(26.3)	96(16.7)	
	전체	356(100)	66(100)	152(100)	574(100)	
교사의 인격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24(6.7)	2(3.1)	26(17.2)	52(9.1)	40.78**
	불만족스러운 편	49(13.7)	7(10.8)	26(17.2)	82(14.3)	
	보통	180(50.4)	27(41.5)	51(33.8)	258(45.0)	
	만족스러운 편	84(23.5)	17(26.2)	42(27.8)	143(25.0)	
	매우 만족	20(5.6)	12(18.5)	6(4.0)	38(6.6)	
	전체	357(100)	65(100)	151(100)	573(100)	
교사의 가르치는 방식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24(6.8)	1(1.6)	25(16.7)	50(8.8)	78.23**
	불만족스러운 편	49(13.8)	8(12.5)	52(34.7)	109(19.2)	
	보통	183(51.7)	22(34.4)	42(28.0)	247(43.5)	
	만족스러운 편	79(22.3)	22(34.4)	27(18.0)	128(22.5)	
	매우 만족	19(5.4)	11(17.2)	4(2.7)	34(6.0)	
	전체	354(100)	64(100)	150(100)	568(100)	
교사의 강의 만족도	매우 불만족	23(6.5)	3(5.0)	19(12.9)	45(8.0)	34.10**
	불만족스러운 편	47(13.3)	8(13.3)	40(27.2)	95(16.9)	
	보통	195(55.1)	25(41.7)	58(39.5)	278(49.6)	
	만족스러운 편	73(20.6)	17(28.3)	26(17.7)	116(20.7)	
	매우 만족	16(4.5)	7(11.7)	4(2.7)	27(4.8)	
	전체	354(100)	60(100)	147(100)	561(100)	
과제를 잘 할 수 있는 정도	매우 못한다	4(1.1)	1(1.5)	5(3.3)	10(1.7)	31.27**
	못하는 편이다	24(6.8)	1(1.5)	22(14.5)	47(8.2)	
	중간정도는 한다	157(44.4)	24(36.4)	70(46.1)	251(43.9)	
	잘하는 편이다	134(37.9)	38(57.6)	50(32.9)	222(38.8)	
	매우 잘한다	35(9.9)	2(3.0)	5(3.3)	42(7.3)	
	전체	354(100)	66(100)	152(100)	572(100)	
시험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는 정도	전혀 모른다	11(3.1)	3(4.5)	7(4.6)	21(3.7)	22.57**
	잘 모르는 편이다	62(17.4)	5(7.5)	19(12.6)	86(15.0)	
	어느 정도 안다	170(47.6)	24(35.8)	72(47.7)	266(46.3)	
	잘 아는 편이다	85(23.8)	33(49.3)	44(29.1)	162(28.2)	
	매우 잘 안다	29(8.1)	2(3.0)	9(6.0)	40(7.0)	
	전체	357(100)	67(100)	151(100)	575(100)	
수업시간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의 정도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44(12.3)	4(6.0)	-	48(11.3)	40.82**
	어쩌다 한 번 참여한다	121(33.8)	9(13.4)	-	130(30.6)	
	어느 정도 참여한다	129(36.0)	32(47.8)	-	161(37.9)	
	자주 참여하는 편이다	48(13.4)	6(9.0)	-	54(12.7)	
	매우 자주 참여한다	16(4.5)	16(23.9)	-	32(7.5)	
	전체	358(100)	67(100)	-	425(100)	

* $p < .05$, ** $p < .01$

또한 교사의 강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물었을 때도 대부분은 보통, 또는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조기유학생과 귀국 청소년의 경우 매우 불만족스럽다거나 불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미국 청소년들에 비해 많았다.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세 집단 모두 중간정도는 한다 또는 잘하는 편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교사와 관련된 변인들과 마찬가지로 조기유학생과 귀국 청소년들이 미국 청소년들에 비해 못한다거나 매우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시험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거나 잘 모르는 편이라고 응답한 반응이 조기유학생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20.5%) 다음이 귀국 청소년(17.2%)이었으며, 미국 청소년은 12% 정도가 매우 못한다거나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여 미국에 간 조기 유학생들은 언어 등 문제 때문에, 귀국 청소년들은 재입국하여 한국의 학교 상황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업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에 대해 조기 유학생과 미국 청소년에게만 물어본 결과, 두 집단 공히 어느 정도 참여한다, 자주 참여하는 편이다, 매우 자주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부분이었지만, 조기유학생의 경우 어쩌다 한번 참여하거나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거의 46%나 되어 거의 반 수 가까이 되는 조기 유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거나 토론하는데 있어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에 잘 발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기유학생들은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47명)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영어능력의 부족(44명), 하기

싫어서(29명)의 순으로 들었다. 이에 비해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미국학생들은 소극적인 성격(12명), 하기 싫어서(6명), 영어능력의 부족(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수업 이외에 학교에서 행정적인 측면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기유학생의 경우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지만,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도 42.3%나 되었다. 이는 미국 청소년의 경우 10.6%만이 잘 모르다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조기 유학생들이 학교의 행정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모르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해주었다.

심리사회적 영역

심리사회적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의식과 심리적 적응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우선 진로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기유학생과 미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래의 학교와 직업을 결정했는지의 여부와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 정도를 물어보았다. 자신이 가고싶은 대학을 정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조기 유학생의 경우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빈도가 더 높았고 미국 청소년의 경우는 결정한 빈도가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대략 반 정도는 결정을 하였고, 반 정도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다(표 3 참조). 장래의 직업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조기유학생과 미국 청소년 두 집단 모두 결정한 학생이 더 많았다. 그러나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약 40%)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미래에 대하여 아직 불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에 원

표 3. 심리·사회적 영역문항의 집단별 빈도(퍼센트) 및 차이검증

문항	항목	조기유학생	미국청소년	전체	χ^2
장래의 학교를 결정했는지 여부	예	157(44.1)	39(58.2)	196(46.3)	4.51
	아니오	199(55.9)	28(41.8)	227(53.7)	
	전체	356(100)	67(100)	423(100)	
장래의 직업을 결정했는지 여부	예	209(60.2)	45(67.2)	254(61.4)	1.14
	아니오	138(39.8)	22(32.8)	160(38.6)	
	전체	347(100.0)	67(100)	414(100)	
다섯 살 이하 차이나는 인물 중 역할모델이 있는지의 여부	있다	82(23.5)	24(38.7)	106(25.8)	6.37*
	없다	267(76.5)	38(61.3)	305(74.2)	
	전체	349(100)	62(100)	411(100)	
나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 중 역할모델이 있는지의 여부	있다	115(33.7)	17(26.6)	132(32.6)	1.26
	없다	226(66.3)	47(73.4)	273(67.4)	
	전체	341(100)	64(100)	405(100)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처럼 되고싶은 인물이 있는지의 여부	있다	83(25.5)	12(20.3)	95(24.7)	.73
	없다	242(74.5)	47(79.7)	289(75.3)	
	전체	325(100)	59(100)	384(100)	

* $p < .05$

하는 직업은 조기 유학생의 경우 의사 등의 보건 의료 전문가(43명)가 가장 많았고, 연예인이나 방송국 PD 등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직업(42명), 컴퓨터 관련 전문가(29명), 대학 교수나 학교 교사 등 교육전문가(14명), 행정, 경영 및 재정전문가와 공학관련 기술 종사자(11명) 순으로 꼽았고, 미국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직(9명), 문화, 예술 및 방송 관련 직업(8명), 컴퓨터 관련 전문가(8명), 예술, 연예 및 경기 준 전문가(5명), 법률,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면접연구에서 밝혀진 바대로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자기 행동의 표본을 삼을만한 역할모델이 부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하에 실제로 그러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기유학생과 미국 청소년에게 직접 다섯 살 이하로 차이나는 인물 중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되는 인물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미국 청소년들이 더 높아서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미국 학생들에 비해 역할모델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살 이하로 차이나는 인물 중 그 사람처럼 되고싶다고 생각되는 인물이 있는 경우,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이유는 조기 유학생의 경우 공부를 잘한다거나 똑똑한 등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27명), 그 사람의 인격(12명), 또는 노력하는 자세(10명)때문이라고 응답한 반면, 미국 학생들은 인격 때문에(10명), 능력 때문에(3명)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 중 그 사람처럼 되고싶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도 역시 없다고 응답

한 비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두 집단 모두에서 높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조기 유학생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나 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 중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조기유학생의 경우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26명), 열심히 살기 때문에(14명), 존경하기 때문에(10명)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미국 청소년은 인격 때문에(5명)를 가장 많이 들었고, 그 외 기타 열심히 살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등으로 응답하였고 그 외 기타 응답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인물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도 역시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보다 높아서 전반적으로 조기유학생이든 미국 청소년이든 이상으로 삼고 따라할 역할모델이 없는 편임을 보여주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처럼 되고싶은 인물에 대하여 조기 유학생은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거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17명)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그 사람의 정신과 행동에 감동 받아서(16명)라고 응답하였으며 나 도 그 사람처럼 되고싶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있었다(9명).

이들의 직업은 조기유학생의 경우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28명), 행정 및 경영관리자(4명), 보건의료 전문가(4명), 교육 전문가(4명), 학생(4명)으로 나타났고, 미국학생의 경우는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2명)와 기타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모델 및 홍보 종사자 등을 꼽았다.

조기유학생, 미국 청소년, 귀국 청소년 세 집단을 대상으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어색함이나 스트레스 정도를 응답하게 했을 때, 조기유학생이 가장 많은 어색함이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청소년과 귀국 청소년은 비슷한 수준을 보여, 역시 조기 유학생들이 대인관계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는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외로움, 우울, 무가치감, 불안 등으로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를 세 집단간 비교해본 결과, 미국 청소년이 가장 부적응적이고, 조기유학생이 그 다음이며, 귀국 청소년이 가장 낮은 수준의 심리적 부적응 수준을 나타내었다(표 4 참조).

본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인터넷을 자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여부를 물어본 결과 조기유학생과 미국청소년은 약 76%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고, 귀국청소년의 경

표 4.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정도에서 조기유학생, 미국청소년, 귀국청소년 집단차이검증

종속변인	집단	평균	평균자승	자유도	F
대인관계스트레스	조기유학생	12.10	491.42	2/555	39.05**
	미국청소년	9.38			
	귀국청소년	9.37			
심리적 부적응	조기유학생	19.45	70.87	2/541	4.09*
	미국청소년	19.59			
	귀국청소년	18.34			

* $p < .05$, ** $p < .01$

우는 약 91%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인터넷 프로그램의 활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부모자녀관계영역

가정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상담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 및 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님과 어느 정도 상의를 하는지, 집안 일이 학교 공부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 및 대화상대, 부모님과 떨어져 있을 경우 어느 정도 접촉을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님과 상의하는 정도에 대하여 조기 유학생들과 귀국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상의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많았고 항상 상의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조기 유학생 68명

(19.9%), 귀국 청소년 33명(21.7%)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 청소년들은 7명(10.8%)으로 나타나 한국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부모님과 어려운 일을 더 많이 상의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별로 상의하지 않는 편이라거나 전혀 상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조기 유학생의 경우 130명(38.1%), 귀국 청소년의 경우 62명(약 41%)이나 되어 미국 청소년들보다는(약 58%) 부모님과 어려운 문제를 상의하는 편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공부에 집안 일이 얼마나 방해되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조기 유학생의 경우는 대부분(61.9%) 별로 방해가 되지 않는 편이라거나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지만 약간 또는 많은 방해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38%나 되어 조기 유학생들이 한국에서와는 달리 학교공부 이

표 5. 부모자녀관계영역의 집단별 빈도(퍼센트) 및 차이검증

문항	항목	조기유학생	미국청소년	귀국유학생	전체	χ^2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님과 상의하는 정도	전혀 상의하지 않는다	32(9.4)	12(18.5)	18(11.8)	62(11.1)	11.57**
	별로 상의하지 않는 편이다	98(28.7)	26(40.0)	44(28.9)	168(30.1)	
	어느 정도 상의를 하는 편이다	144(42.1)	20(30.8)	57(37.5)	221(39.5)	
	항상 상의한다	68(19.9)	7(10.8)	33(21.7)	108(19.3)	
	전체	342(100)	65(100)	152(100)	559(100)	
학교공부에 집안 일이 방해되는 정도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	82(23.8)	23(34.8)	-	105(25.6)	14.65**
	별로 방해가 되지 않는 편이다	131(38.1)	11(16.7)	-	142(34.6)	
	약간 방해가 되는 편이다	104(30.2)	21(31.8)	-	125(30.5)	
	많은 방해가 된다	27(7.8)	11(16.7)	-	38(9.3)	
	전체	344(100)	66(100)	-	410(100)	
부모님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정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74(61.2)	18(38.3)	-	92(54.8)	9.73*
	한 달에 2회 정도	17(14.0)	6(12.8)	-	23(13.7)	
	한 달에 1회 정도	11(9.1)	9(19.1)	-	20(11.9)	
	두 세 달에 1회 정도	8(6.6)	5(10.6)	-	13(7.7)	
	6개월에 1회 정도	11(9.1)	9(19.1)	-	20(11.9)	
	전체	121(100)	47(100)	-	168(100)	

* $p < .05$, ** $p < .01$

외에 가정 일을 도와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청소년의 경우도 조기 유학생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과 방해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반반정도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에는 혼자 공부하러 온 조기유학생과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온 가정의 청소년이 섞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학교공부에 집안 일이 방해된다고 응답한 반응은 이민자녀들의 반응이 대부분일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 중에서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은 조기 유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형제, 친척, 할머니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미국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와 형제가 거의 비슷했고 할머니, 친척 순이었다.

가족 중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과 하루에 이야기하는 시간은 조기 유학생의 경우(약 78분)에 비해 미국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아서(약 157분), 조기 유학생들이 미국 청소년들에 비해 가족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적고 따라서 자신의 문제나 생각들을 가족과 나눌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보여주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로 얼마나 연락을 하는지에 대해 두 집단 모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조기 유학생의 경우 미국 청소년들보다 더 빈번히 연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간에 얼마나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인지를 12개 항목을 통하여 물어본 결과 조기유학생이 미국 청소년보다 더 친밀하고 지지적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17.42, p<.01$).

범영역

법과 관련된 영역은 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지위비행 및 학교에서의 문

제행동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었는데, 현재 담배를 피우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세 집단 모두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피운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귀국 청소년의 흡연율이 가장 높았고(19.2%), 조기유학생(15.4%), 미국 청소년(10.8%)의 순이었다.

그러나 처음 흡연을 한 나이를 보면 미국 청소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연령에 흡연을 시작하고, 조기유학생과 귀국 청소년들은 비슷한 연령대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연령은 약 13세에서 14세 즉, 중학교 1, 2학년 경 흡연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 흡연 연령이 과거에 비해 매우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하루에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에 대한 문항에 미국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양을 흡연하고 귀국 청소년, 조기유학생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비록 현재 흡연율은 귀국 청소년과 조기유학생 집단이 높지만 흡연량은 미국 청소년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술을 마셔본 경험은 조기유학생과 귀국 유학생의 경우는 마셔본 사람이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미국 청소년은 마셔보지 않은 사람이 약간 더 많았다.

처음 음주를 경험한 연령 역시 흡연과 마찬가지로 미국 청소년들이 더 어린 나이에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음주연령 역시 흡연과 마찬가지로 13세에서 14세 경으로 흡연을 시작한 연령과 비슷함을 보였고, 따라서 중 1, 2의 연령이 흡연이나 음주를 시작하게 되는 시기임을 보여주었다.

지금 현재는 술을 어느 정도나 마시는지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한 달에 1회 이하라고 응답하여 많은 학생들이 많은 양을 마시는 것

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또는 그 이하고 어쩌다 한 번씩 술을 마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주 학생들 중에서 한 달에 5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경우는 미국학생의 경우가 빈도는 적으나 비율로 보아 가장 높았다(23.5%)

표 6. 법영역 관련 문항의 집단별 빈도(퍼센트) 및 차이검증

문항	항목	조기유학생	미국청소년	귀국유학생	전체	χ^2
흡연여부	예	53(15.4)	7(10.8)	29(19.2)	89(15.9)	2.58
	아니오	291(84.6)	58(89.2)	122(80.8)	471(84.1)	
	전체	344(100)	65(100)	151(100)	560(100)	
음주여부	예	191(55.7)	26(44.8)	102(68.5)	319(58.0)	11.57**
	아니오	152(44.3)	32(55.2)	47(31.5)	231(42.0)	
	전체	343(100)	58(100)	149(100)	550(100)	
현재 술을 마시는 정도	한 달에 1회 이하	105(70.0)	9(52.9)	65(69.2)	179(68.6)	10.78
	한 달에 1-2회 정도	23(15.3)	4(23.5)	15(16.0)	42(16.1)	
	한 달에 3-4회 정도	11(7.3)	0	8(8.5)	19(7.3)	
	한 달에 5회 이상	11(7.3)	4(23.5)	5(5.3)	20(7.7)	
	전체	150(100)	17(100)	93(100)	260(100)	
현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	예	20(5.9)	11(17.2)	13(8.8)	44(8.0)	9.46**
	아니오	318(94.1)	53(82.8)	134(91.2)	505(92.0)	
	전체	338(100)	64(100)	147(100)	549(100)	
결석 일수	하지 않는다	117(34.6)	12(19.7)	76(51.0)	205(37.4)	38.29**
	1년에 한두 번	85(25.1)	13(21.3)	43(28.9)	141(25.7)	
	1년에 세네 번	43(12.7)	11(18.0)	10(6.7)	64(11.7)	
	1년에 대여섯 번	37(10.9)	13(21.3)	5(3.4)	55(10.0)	
	1년에 일곱 번 이상	56(16.6)	12(19.7)	15(10.1)	83(15.1)	
	전체	338(100)	61(100)	149(100)	548(100)	
마약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있다	5(1.5)	12(18.5)	-	17(4.2)	38.65**
	없다	331(98.5)	53(81.5)	-	384(95.8)	
	전체	336(100)	65(100)	-	401(100)	
성 관계를 가져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	있다	9(2.7)	11(17.2)	-	20(5.0)	23.83**
	없다	327(97.3)	53(82.8)	-	380(95.0)	
	전체	336(100)	64(100)	-	400(100)	
과거 체포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예	36(10.7)	12(18.5)	-	48(11.9)	3.14
	아니오	301(89.3)	53(81.5)	-	354(88.1)	
	전체	337(100)	65(100)	-	402(100)	

** $p < .01$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세 집단 모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미국 학생들의 경우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고(17.2%), 귀국 청소년(8.8%), 조기유학생(5.9%) 순으로 나타나 조기 유학생의 경우 오히려 징계와 같은 심한 처벌은 많이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음 징계를 받는 연령도 미국 청소년들이 13.71세로 가장 낮은 연령에 징계를 받고 조기 유학생은 세 집단 중 가장 늦은 연령에 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당한 이유는 조기유학생의 경우 싸움(10명), 무단결석(9명), 술담배(5명) 때문이었고, 미

국청소년의 경우는 술담배(2명)와 떠들었기 때문에(1명), 귀국청소년의 경우 술담배(8명), 무단결석(5명), 싸움(5명) 때문으로 집단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즉, 집단마다 순서는 달랐지만 세 집단 모두 주로 싸움이나 무단 결석, 또는 술담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석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 세 집단 모두 하지 않거나 1년에 한두번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1년에 대 여섯 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조기 유학생의 경우 93명(27.5%), 귀국 청소년은 20명(13.5%), 미국 청소년은 25명(41%)으로, 미국 청소년에 비하여 조기유 학생들이 더 많은 결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결석은 학교 부적

표 7. 법관련 영역에서 조기유학생, 미국청소년, 귀국청소년 집단차이검증

종속변인	집단	평균	평균자승	자유도	F
처음 흡연한 연령	조기유학생	14.15	12.38	2/94	3.18*
	미국청소년	12.83			
	귀국청소년	14.88			
현재 흡연량	조기유학생	7.48	59.17	2/76	1.58
	미국청소년	10.17			
	귀국청소년	9.92			
음주연령	조기유학생	14.28	2.34	2/255	.85
	미국청소년	13.63			
	귀국청소년	14.46			
처음 징계 당한 연령	조기유학생	15.32	7.05	2/51	1.78
	미국청소년	13.71			
	귀국청소년	14.95			
마약을 처음한 나이	조기유학생	13.50	6.42	1/7	2.85
	미국청소년	15.20			
성관계를 처음 가진 나이	미국청소년	15.78	.33	1/15	.11
	귀국청소년	15.50			
처음 체포된 나이	조기유학생	15.33	2.10	1/33	.77
	미국청소년	14.75			

* $p < .05$

용의 간접적인 지표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교적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년에 대 여섯 번 이상 학교에 가지 않는 청소년들의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충분히 부적응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졌다.

마약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기유학생과 미국청소년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미국 청소년들이 조기 유학생보다 더 많이 마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을 처음 한 연령은 미국 청소년에 비해 조기 유학생이 오히려 더 낮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관계를 가져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기 유학생과 미국청소년에게 물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가져본 적이 없는 빈도가 훨씬 더 높았지만 조기 유학생은 2%만이 경험을 한 반면 미국 청소년은 17%가 경험했다고 보고하여 미국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따라서 많은 경험을 했을 가능성과 한국 학생들은 성에 대해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응답을 솔직하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처음 성관계를 가졌던 나이는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과거에 체포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기유학생과 미국청소년 집단 모두 체포되지 않았던 학생이 훨씬 더 많았지만 조기 유학생의 경우는 전체의 10.7%, 미국 청소년의 경우는 18.5%로 미국 청소년들에 비해 조기 유학생들은 체포되는 일이 더 적었음을 보여주었다. 처음 체포된 나이는 두 집단 모두 14.5세 경으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문화적 적응 영역

문화적 적응의 영역은 미국 친구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등을 통하여 조기유학생들의 적응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구성된 질문들로 우선, 조기유학생과 미국 청소년에게 미국 친구들과 하는 파티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물었을 때 조기 유학생의 경우는 대다수(78.3%)가 20% 미만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미국 청소년의 경우 35.4%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작은 빈도로, 조기 유학생들이 언어나 문화적 장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미국 친구들과의 파티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 및 미국의 문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기유학생과 귀국 유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았다. 우선 한국의 현대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조기유학생과 귀국 유학생 모두 좋은 면이 많다고 응답하였는데, 귀국 청소년의 경우 “매우 나쁘다”거나 “나쁜 면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기 유학생에 비해 높았다. 이는 미국생활에 적응해 있다가 귀국해서 아직 한국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생활방식을 더 선호하여 한국의 것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나쁜 면이 많다”거나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기유학생과 귀국청소년 집단 모두 높았는데, 조기유학생 64%에 비해 귀국 청소년의 경우는 83%가 나쁘다거나 매우 나쁘다고 응답하여 귀국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음을 드러내었다.

반대로 미국의 현대문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기유학생과 귀국청소년 집단 모두 “좋은 면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하고 적어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에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미국의 현대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표 8. 문화적 적응영역 관련 문항의 집단별 빈도(퍼센트) 및 차이검증

문항	항목	조기유학생	미국청소년	귀국유학생	전체	χ^2
미국친구들과 어울리는 파티에 참여하는 정도	0-20%	270(78.3)	23(35.4)	-	293(71.5)	68.63**
	20-50%	38(11.0)	13(20.0)	-	51(12.4)	
	50-80%	31(9.0)	16(24.6)	-	47(11.5)	
	80-100%	6(1.7)	13(20.0)	-	19(4.6)	
	전체	348(100)	65(100)	-	410(100)	
한국의 현대문화에 대한 인식	매우 나쁘다	4(1.1)	-	8(5.3)	12(2.4)	52.98**
	나쁜 면이 많은 편이다	37(10.5)	-	41(27.2)	78(15.5)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76(21.5)	-	42(27.8)	118(23.4)	
	좋은 면이 많은 편이다	127(36.0)	-	47(31.1)	174(34.5)	
	매우 좋다	98(27.8)	-	9(6.0)	107(21.2)	
	잘 모르겠다	11(3.1)	-	4(2.6)	15(3.0)	
	전체	353(100)	-	151(100)	504(100)	
한국의 사회에 대한 인식	매우 나쁘다	60(17.0)	-	41(27.0)	101(20.0)	19.83**
	나쁜 면이 많은 편이다	166(47.0)	-	85(55.9)	251(49.7)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92(26.1)	-	20(13.2)	112(22.2)	
	좋은 면이 많은 편이다	33(9.3)	-	6(3.9)	39(7.7)	
	매우 좋다	2(6)	-	0	2(6)	
	전체	353(100)	-	152(100)	505(100)	
미국의 현대문화에 대한 인식	매우 나쁘다	2(.6)	-	5(3.3)	7(1.4)	15.09**
	나쁜 면이 많은 편이다	16(4.5)	-	12(7.9)	28(5.6)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88(25.0)	-	50(32.9)	138(27.4)	
	좋은 면이 많은 편이다	175(49.7)	-	67(44.1)	242(48.0)	
	매우 좋다	71(20.2)	-	18(11.8)	89(17.7)	
	전체	352(100)	-	152(100)	504(100)	
미국의 사회에 대한 인식	매우 나쁘다	0	-	8(5.3)	8(1.6)	26.12**
	나쁜 면이 많은 편이다	19(5.4)	-	14(9.2)	33(6.6)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130(37.1)	-	62(9.2)	193(38.4)	
	좋은 면이 많은 편이다	157(44.9)	-	57(37.5)	214(42.6)	
	매우 좋다	44(12.6)	-	10(6.6)	54(10.8)	
	전체	350(100)	-	152(100)	502(100)	
미국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귀국유학생의 경우 과거만족도)	매우 불만족스럽다	4(1.2)	-	6(3.9)	10(2.0)	34.93**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37(10.7)	-	16(10.5)	53(10.6)	
	만족도 불만도 아니다	106(30.5)	-	19(12.5)	125(25.1)	
	만족스러운 편이다	159(45.8)	-	68(44.7)	227(45.5)	
	매우 만족스럽다	41(11.8)	-	43(28.3)	84(16.8)	
	전체	347(100)	-	152(100)	499(100)	

** $p < .01$

사회에 대해서도 “좋다”거나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서 조기 유학생이나 귀국 청소년들 모두 전반적인 미국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임을 보여주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미국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만족스럽다”거나 “매우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2%이고 “만족도 불만도 아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라서 전체적으로 87%의 청소년들은 미국의 생활에 대해 비교적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물었을 때는 “불만족스럽다”거나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40.5%나 되어 새로운 환경에 대해 심리적으로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조기유학생들의 미국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응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그 결과 조기 유학생의 경우 미국에서 살겠다는 응답(60%)이 한국에서 살겠다는 응답(30%)보다 배나 더 많았다.

나아가 졸업 후 왜 그곳(한국, 미국 또는 제 3국)에서 살고 싶은지를 물어보았을 때 조기유학생들은 그곳이 좋아서(60명), 살기 편해서(58명), 여러 가지 면에서 기회가 많아서(26명)로 응답을 하여 조기유학생들이 미국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논 의

조기유학생들의 문제 및 상담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

조기유학생들이 상담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

및 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기유학생 및 이민 자녀 등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적응 영역,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영역, 문화적응 영역, 법문화 영역, 부모자식관계 영역, 등 다섯 개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문제들이 파악되었다.

첫째로,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학교적응 영역의 문제로는 면접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친구와 미국인 친구를 모두 포함한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교사와의 상호 이해가 부족하고, 학교시스템이나 새로운 수업방식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내어주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언어 장벽 및 소극적 성격으로 인하여 수업 참여도가 저조하고 따라서 학업에 대한 흥미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들은 공부를 목적으로 미국에 온 학생들이 만큼 학업에 대한 압박감이 매우 크며 장래의 목표가 불확실하거나 학교에 빠지는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영역의 문제로는 언어장벽이나 행동의 차이로 인하여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 이외의 취미나 여가활동이 부족하며, 외로움, 우울, 무가치감, 불안 등 심리적 부적응이 있고, 영어를 못함으로 인하여 학업성취가 낮고 그로 인하여 낮은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문화적응 영역의 문제로는 언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청소년들과의 상호작용을 꺼리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점점 상호작용이 줄어들게 되며 따라서 문화적 적응을 더 지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을 시사하였다. 또한 미국에 적응을 한 경우는 한국의 문화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는 한국생활을 그리워하고 미국 생활에 대하여 불만족을 품게 됨으로써 역시 긍정적 적응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로, 법문화 영역의 문제로는, 흡연문제, 음주문제, 마약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고, 성경험을 하는 연령이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범법 행위를 하여 체포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다섯째로, 부모자식관계 영역의 문제로는 미국 생활 특성상 부모님과과의 상호작용이 한국에서 살던 때와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가족간의 친밀감이 부족해지기 쉬우며, 가정과 학교에서 상담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 및 분야가 달라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문제를 나타내었고, 무엇보다도 보고 배울 수 있는 역할모델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귀국유학생의 문제 및 상담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

귀국유학생들이 상담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 및 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귀국유학생의 심리적 재적응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적응 영역,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영역, 문화적응 영역, 법문화 영역, 부모자식관계 영역, 등 다섯 개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문제들이 파악되었다.

첫째로,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귀국 유학생의 학교적응 영역의 문제로는 미국에 조기유학을 간 학생과는 반대로 한국 학교체제에 대한 부적응, 한국교사와의 상호 이해 부족 또는 교사에 대한

불만, 수업방식에 대한 부적응 및 과제 수행의 어려움, 과제 및 시험방식에 대한 이해 부적응, 교우관계 불만족 등이 한국상황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귀국 유학생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영역의 문제는 공부 이외의 취미나 여가활동의 부족하고 외로움, 우울, 무가치감, 불안 등 심리적 부적응을 겪고 있으며, 역시 낮은 자아 개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귀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영역의 문제로는 한국의 문화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넷째로,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귀국 유학생의 법문화 영역의 문제로, 조기유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문제, 음주문제,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징계 등을 역시 겪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귀국 유학생의 부모자식관계 영역의 문제로는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과의 상호작용이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구성해야 할 프로그램의 내용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법, 심리적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 미국의 법지식을 제공 하는 등의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각 내용들을 포함시킨 프로그램을 제작 및 실행하였다.

연구 2

연구 2는 연구 1에서 밝혀진 상담개입을 필요

로 하는 영역 및 분야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조기유학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에서 또는 귀국 후 한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이 주목적이었다. 본래 본 연구는 조기유학생의 이주시기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귀국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 및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장기 연구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첫 단계로 입국하기 전의 청소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불안수준을 감소시키며, 문화적 충격을 방지 또는 경감시킨다는 목적 하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인터넷을 통한 일반 상담 및 중재상담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입프로그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인터넷 웹페이지를 이용하는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면대면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인터넷 웹페이지를 이용하는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현실적 적응가능성과 경제성 때문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학생들은 어느 한 지역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흩어지게 되므로 종단적 면대면 집단 프로그램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 설계된 상담교육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제도화되는 경우, 면대면 교육방식에 의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웹페이지를 이용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활동이 면대면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못지 않은 효과를 거두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되는 직접적인 면대면 집단프

로그램의 목적은 직접적 면대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인터넷 웹페이지를 이용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방 법

피험자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의 수는 총 553명으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척도 예비검사에 남녀 대학생 297명,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본 검사에서 통제집단이 167명, 2001년에 조기유학을 떠나고자 계획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89명으로, 온라인에 참여한 학생이 62명이었고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27명이었다. 그러나 이 중 모든 학생의 정보가 효과검증에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 학생 중 사전사후검사를 모두 실시한 학생들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서울에 있는 유학원과 신문사 등에 조기유학을 신청한 학생들의 명단을 얻어서 2차에 걸친 설명회를 하고 부모의 동의서를 얻은 후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

프로그램내용 구성을 위한 절차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을 위하여 연구 1에서 얻어진 내용과 더불어 인터넷 및 각종 문헌에서 수집한 내용을 활용하였고, 미국에 있는 공동연구원, 유학원 담당자, 그리고 현재 조기유학을 하고 있으며 잠시 귀국한 학생들을 통해서도 역시 요구되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또한 미국에서 현재 상담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교사를 초청하여 조기유학생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강

연회를 개최함으로써 교사입장에서 보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

미국에 도착하기 이전의 1단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적응, 사회 및 심리적 스트레스, 문화적응, 법문화 적응, 부모자식관계의 다섯 가지 영역에 걸쳐져 있다. 아래의 내용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각각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인터넷 프로그램

인터넷 프로그램의 내용은 크게 등록, 도입, 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http://sa.intersaint.com>>의 주소로 들어가면 먼저 등록을 하고, 도입부분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읽은 후 미국에 가기전 적응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루에 1회차 씩 총 12회차에 걸쳐서 순서대로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적응 준비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정해진 내용을 모두 시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강제적으로 한 방향으로 진행되게끔 구성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언제든지 상담의 방, 통

역도우미, 및 정보영역의 영역으로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처음 로그인을 하는 부분에 <영어짱> <HOT> <게시판> <유머>란을 포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구성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표 10과 같다.

전체 인터넷 프로그램 중 등록과 도입(introduction)부분을 제외한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적응준비프로그램

적응준비 프로그램은 목표설정, 스트레스 다루기, 자기표현 및 자기주장, 유학사례 토론 등의 내용을 약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총 12회차에 걸쳐서 하루에 1회씩 참여하도록 구성되어있었고 각 프로그램의 시작단계에 유학에 필요한 정보를 퀴즈형식으로 제시하여 유학과 관련된 정보와 미국생활에 필요한 상식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1회차에는 사전검사를 12회차에는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의 내용은 스트레스 정도, 목표설정 수준, 자기효능감, 자기주장성 등에 대한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9. 각 영역별 프로그램 활동내용

영역	프로그램 활동
학교적응	미국의 교육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감에 따라 느끼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해본다
문화적응	미국과 한국의 상징, 지리, 정치, 역사, 경제, 과학, 스포츠, 음식, 등에 대한 교육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계별 현상들 및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
법문화 적응	미국의 법문화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제공
부모자식관계	새로운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모자식간의 갈등 양상 및 원인, 그리고 대략적인 해결방안에 관한 정보제공

표 10. 인터넷 웹사이트의 구성 요약

메뉴		내 용
등록		주민등록번호와 성별, 패스워드와 자기소개 등을 포함한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ID를 설정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형성하였다. 이 때 여러 종류의 캐릭터를 제시하고 그 중 자신이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웹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애착심을 가지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troduction		도입 부분은 프로그램의 목적 및 구성에 대한 설명과 기대되는 효과,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켰다. 학생이 퀴즈를 많이 맞추거나 매회차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서 참여도가 높거나 친구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 인기가 올라가면 그 학생의 성취도가 올라가고,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악세서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캐릭터를 6단계까지 성장시키면 선물로 자신의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하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프로그램 화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였다.
본 프로그램	적응준비 프로그램	목표설정, 스트레스 다루기, 자기표현 및 자기주장, 유학사례 등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하루에 2-3개 종류의 프로그램을 총 12회차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1회차와 12회차에는 프로그램 효과검증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상담의 방	상담의 방에서는 공개상담과 이메일 상담을 하거나 상담을 미리 예약한 후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 공개상담에서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상담자가 답을 다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역도우미	통역 도우미는 유학 준비 과정에서 학교정보 요청이나 현지 취학 담당자와의 연결 등 통역이 필요할 때 그에 대한 질문을 게시판에 남기면 현지 연구원이 직접 학교와 연결을 해주거나 게시판에 글을 남기도록 하였다. 영어나 직접적인 연결문제 이외에도 미국에 대하여 알고싶은 정보나 문화에 대한 궁금한 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영역	정보영역에서는 미국유학을 떠나기 위하여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각종 정보와 현지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필수 정보들을 포함시켰다.

상담의 방

상담의 방에서는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갖게되는 질문이나, 유학을 준비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개별적인 문제들을 게시판에 올리면, 상담자가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와 함께 질문을 둘러싸고 경험하게 되는 심리/ 정서적인 문제에 관하여 건전한 해결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학 가는 나라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아울러 심리적으로도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원래 상담을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면대면 상담이 효과적이겠으나, 현재 사

용자의 이용시간과 거주 장소가 다양하므로, 접속이 자유롭고, 경제적인 이유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한 사이버 상담을 시도하였다. 상담의 방은 일차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의문 사항을 공개 게시판에 올리는 공개 상담과,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목적이거나 게시판에 올리기 어려운 질문에 관해서 직접 상담자와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하는 이메일 상담, 직접 통화 가능한 시간을 예약하여 연락하는 예약 상담 등 총 세 파트로 구성되어있었다. 이 때 상담을 맡은 사람은 본 연구진 중의 한 사람인 임상심리 전문가와 상담 심리를 전공한 박사급 연구원이었다.

통역 도우미(중재상담)

통역도우미는 중재상담의 다른 이름으로 어린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역도우미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학생이 유학을 떠나는 학교의 외국인 상담교사, 담임교사에게 궁금한 질문 사항이나 전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본 연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와서 연구팀에게 중재 상담을 요청하면, 연구팀은 이 내용을 현지 상담교사, 담임교사에게 질문하여 그 답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전달해주도록 되어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하여 상담을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통역 도우미의 역할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심리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한 연구자가 담당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가 숙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에 가게되는 대부분의 조기유학생을 위하여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을 제공함으로써 초기적응의 촉진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파트로써 본 프로그램을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었다.

정보영역

정보영역은 (1) 성공유학의 조건, (2) 스케줄 작성요령, (3) 학교생활 적응, (4) 사회문화적응, (5) 법제도 적응, 크게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 형식으로 올려놓아, 각 분야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각 영역을 클릭하여 내용을 읽거나 정보영역자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영역에 포함된 내용들은 표 11과 같다.

면대면 프로그램

면대면 프로그램은 온라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표 11. 정보영역의 내용

영역	내 용
성공적인 유학을 위한 전제 조건	목적의식의 필요성, 능력파악의 필요성, 철저한 사전준비, 성공자질 등에 대한 설명.
스케줄 작성요령 (준비에서 출국까지)	스케줄에 따른 세부내용, 유학계획수립, 자료수집, 학교안내서 청구방법, 학교선정, 미국의 학교 선택방법, 학교선택시 고려사항, 시험준비, SLEP, SSAT,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지원서류제출, 입학서류준비, 입학 수속 절차, 수속진행, 여권신청, 비자신청, 비자인터뷰, 출국준비, 도착전후, 학교도착 전후 체크할 사항 등.
학교생활 적응	미국의 교육 시스템, 학교의 종류,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 수강신청 방법, 교과과정, 학교 생활, 학교에서 대인관계시 주의할 점, 학교생활의 기본 매너, 미국에서의 성적처리, 학교관련 용어 또는 속어, 속어(Slang), 학교규칙, 징계, 처벌의 방법 등.
사회문화적응	미국의 전반적인 문화, 기후, 생활, 시차, 썸머타임, 팁, 度量. 단위, 통화, 숙박, 의류, 교통, 전화, 전기/ 가스/ 수도, 우편, 의료보험 및 병원, 치안,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 종교가 다를 경우의 매너, 남녀 교제, 거리에서의 매너, 인사, 식사할 때의 예의, 기숙사 생활, 미국친구 사귄 때 고려할 점, 다양한 Gesture, 미국의 국경일과 축제일, 파티문화 등.
법 및 제도적응	청소년이 알아야 할 법, 예를 들면, 술, 마약, 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미국의 운전문화와 운전습관, 국제면허와 미국면허, 자동차면허 취득요령 등.

직접 집단상담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효과성을 온라인 프로그램의 효과와 비교하고자 실시되었는데, 3회에 걸쳐서 총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대면 프로그램은 총 12회기로 구성되어있었다. 내용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프로그램과 같으나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진행교사가 직접 학생들을 데리고 집단상담을 했다는 점만 달랐다. 이 때 프로그램 진행교사는 오프라인의 상담교사와는 별개의 인물이었다. 매 회기마다 진행되는 내용은 제 1 부. 유학 목표 세우기, 제 2 부. 적극적인 자기 표현 방법, 제 3 부.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 3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주요 프로그램을 12회기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매시간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요약해 주었고, 그 시간에 할 것을 간단히 말해 주어서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해주었고, 매시간 마무리할 때는 그 시간에 한 것을 요약해 주고, 다음 시간에 할 것을 간단히 말해 주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라는 프로그램 제목과 개인의 이름을 붙인 워크북을 각각 나누어주고, 프로그램 중에서 행해지는 내용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를 검증하기 위한 종속측정치로서 스트레스 측정치, 목표명료성 측정치, 자기주장성 측정치, 자기효능감 측정치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측정치들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유는 조기유학생들이 적응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변인이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변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즉, 조기유학생이 빨리 긍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료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유학생생활에서 경험하게 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과는 다른 주장적인 문화에서 자기주장을 적절히 하는 것이 적응을 촉진시킬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달성되면 자기효능감이 증진되고 따라서 결국은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사용할 문항들을 적용준비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297명의 대학교 1학년생들에게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297명의 대학교 1학년생 응답자들 중 146명은 남자이고, 151명은 여자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약 18세였다.

절차

효과검증을 위한 절차

도구

연구 2에서는 조기유학생의 적응을 위한 인터넷 상담 프로그램 중에서 유학을 가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적응준비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목표였다. 적응준비프로그램에서는 스트레스 관리법, 목표명료화 훈련, 자기주장성 훈련, 자기효능감 증진 훈련이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에, 적응준비프로그램의 효

온라인 프로그램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참가한 집단은 각각 프로그램의 첫 회기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마지막 회기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인터넷상에 올라있는 형태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사가 종이로 되어있는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의 경우는 유학원을 방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자 중 한명이 설문을 배부하여 사전검사를 하고 15일 후의 집단모임에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Lazarus(1978)의 개념에 근거하여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본인의 대처능력 이상의 부담과 평가된 환경, 사람과의 특정관계'라는 정의를 사용하되 조기유학생의 상황과 관련이 되어야 하기에 학교생활, 친구관계, 대인관계 등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문제를 1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척도문항들을 최해림(1986)이 한국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어로 번안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 문항들 중에서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에게 공히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을 발췌한 것이다. 발췌된 10개 문항들의 심리측정적 속성과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값이 0.84, Spearman-Brown 공식에 의해 수정된 반분신뢰도 지수가 0.78로 산출되어 비교적 우수한 내적 일관성 및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목표명료성 척도

조기유학생의 목표명료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박운창(1997)이 고등학생들의 진로태도 성숙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의 문항들 중에서 '목표설정의 명료성'을 나타내는 9개를 발췌하였다. 스트레스 척도와 마찬가지로, 9개의 목표명료성 척도 문항들은 ① 문항이 간단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하고, ② 중고등학생들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들이었다. 발췌된 9개 문항들의 신뢰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는 0.85로 산출되었고, Spearman-Brown 공식에 의해 수정된 반분신뢰도 지수는 0.80로 산출되었다. 두개의 지표 역시 비교적 우수한 내적 일관성 및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자기주장성 척도

자기주장성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권리, 욕구, 신념, 느낌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개념으로(Wolp, 1958), 조기유학생의 자기 주장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본 연구의 연구진들이 제작한 10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0 개의 자기 주장성 척도 문항들은 ① 문항이 간단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하고, ② 중고등학생들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들이었으며, 10 개 문항들의 Cronbach- α 는 0.76으로 산출되었고, Spearman-Brown 공식에 의해 수정된 반분신뢰도 지수 역시 0.76으로 산출되었다. 두개의 지표 모두 양호한 내적 일관성 및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자기효능감 척도

조기유학생의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중고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신념으로, 주어진 목표달성에 필요한 행동과정들을 조직화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 조기유학생들이 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용이한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자기 효능감을 적응훈련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총 24 문항으로 구성된 것인데, 자신감을 측정하는 문항 7개, 자기조절 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 12개, 그리고 과제난이도 선호를 측정하는 문항 5개로 구성된 척도이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자신의 환경이나 심리상태를 얼마나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말하며, 과제난이도란 지나치게 쉬운 과제를 선호하거나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려는 태도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는 것을 말한다. 각 요인의 신뢰도를 계산한 결과 자기조절 효능감의 Cronbach- α 는 0.86이었고, Spearman-Brown 공식에 의해 수정된 반분신뢰도 지수는 0.77로 산출되었다. 자신감 척도의 경우는 Cronbach- α 는 0.79, Spearman-Brown 공식에 의해 수정된 반분신뢰도는 0.77로 산출되었다. 과제난이도 선호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 α 는 0.82, Spearman-Brown 반분신뢰도 지수 역시 0.81로 산출되어 세 척도 모두 비교적 신뢰로운 내적 일관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

목표명료성에 대한 적응준비프로그램의 효과

적응준비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

표명료성 척도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모두 완료한 피험자의 숫자는 47명으로 남자가 17명 여자가 30명이었고, 오프라인 면대면 프로그램 집단이 17명으로 남자가 7명 여자가 10명이었고, 온라인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은 18명이었는데 그 중 남자가 4명, 여자가 14명이었다. 이들의 목표명료성 척도의 평균은 표 12와 같다. 통제집단은 사전검사 후 15일이 지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오프라인 면대면 프로그램 집단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사전검사를 하고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사후검사를 했으므로 사전사후검사의 시간간격은 최소 14일에서 21일이었고, 온라인 인터넷 프로그램은 최소 12일에서 20일 정도의 시간간격이 있었다.

목표명료성 점수의 변화에서 프로그램 집단이 통제집단과 가지는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하였다. 변량분석을 위한 종속변인은 목표명료성 점수이고, 독립변인은 사전-사후 검사시기와 집단이었다. 두개의 독립변인 중 사전-사후 검사시기는 피험자내 요인(within-subject

표 12. 목표명료성 척도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오차

	통제집단		오프라인 면대면 프로그램 집단		Online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평균	29.89	29.82	27.77	30.06	29.33	31.78
표준오차	0.97	0.86	1.57	1.39	1.52	1.35
n	47	47	17	17	18	18

표 13. 목표명료성 척도의 집단별 차이검증

효과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검사시기	79.55	1	79.55	9.50**
검사시기×집단	58.11	2	29.06	3.47*
오차	636.39	76	8.37	

* $p < .05$, ** $p < .01$

factor)이고, 집단은 피험자간 요인(between-subject factor)이었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적응준비프로그램을 수행한 집단들은 공히 목표명료성에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여주었고, 특히 온라인 인터넷 집단의 향상도는 오프라인 면대면 집단의 향상도에 비하여 손색이 없었다. 표 13에 제시된 검사시기의 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피험자 내 효과이고 집단의 주효과는 피험자간 효과인데 표에 제시된 오차는 피험자 내 효과의 검증을 위한 오차이다. 유일한 피험자간 효과인 집단의 주효과는 본 연구의 관심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석의 의미가 없으므로 제시되지 않았다.

과제난이도 선호에 대한 적응준비프로그램의 효과

적응준비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과제난이도 선호척도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모두 완료한 피험자의 숫자는 통제집단이 47명, 오프라인 면대면 프로그램 집단이 17명, 온라인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이 18명이었다. 이들의 과제

난이도 선호 척도의 평균은 표 14와 같다.

과제난이도 선호 척도도 마찬가지로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하였다. 변량분석을 위한 종속변인은 과제난이도 선호 점수이고, 독립변인은 사전-사후 검사시기와 집단이었다. 두개의 독립변인 중 사전-사후 검사시기는 피험자내 요인(within-subject factor)이고, 집단은 피험자간 요인(between-subject factor)이었다. 표 14에서 보여지듯이 통제집단과 적응준비프로그램을 수행한 집단들은 공히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여주었는데, 목표 명료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인터넷 집단의 향상도는 오프라인 면대면 집단이나 통제집단의 향상도에 비하여 다소 더 뛰어났다.

자기조절성에 대한 적응준비프로그램의 효과

적응준비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기조절성 척도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모두 완료한 피험자의 숫자는 통제집단이 49명, 오프라

표 14. 과제난이도 선호 척도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 오차

	통제집단		오프라인 면대면 프로그램 집단		온라인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평균	15.17	15.77	16.59	16.82	14.00	14.94
표준오차	0.54	0.57	0.90	0.95	0.87	0.92
n	47	47	17	17	18	18

표 15. 과제난이도 선호 척도의 집단간 차이검증

효과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검사시기	11.62	1	11.62	3.50*
검사시기×집단	2.20	2	1.10	0.33
오차	262.66	79	3.33	

* $p < .05$

표 16. 자기조절성 척도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 오차

	통제집단		오프라인 면대면 프로그램 집단		온라인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평균	38.490	39.592	41.529	41.941	38.500	41.167
표준오차	0.997	0.964	1.692	1.637	1.644	1.591
n	49	49	17	17	18	18

표 17. 자기조절성 척도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 오차

효과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검사시기	64.83	1	64.83	3.84*
검사시기×집단	24.48	2	12.24	0.72
오차	1368.30	81	16.98	

* $p < .05$

인 면대면 프로그램 집단이 17명, 온라인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이 18명이었다. 이들의 자기조절성 척도의 평균은 표 16과 같다. 자기조절성 점수의 변화에서 세 집단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한 결과 표 17에 나타나듯이 온라인 인터넷 집단의 향상도가 오프라인 면대면 집단의 향상도에 비하여 다소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에 대한 적응준비프로그램의 효과

적응준비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

신감 척도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모두 완료한 피험자의 숫자는 통제집단이 50명, 오프라인 면대면 프로그램 집단이 19명, 온라인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이 18명이었다. 이들의 자신감 척도의 평균은 표 18과 같다. 자신감 점수의 변화도 다른 척도와 마찬가지로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표 18에서 나타나듯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적응준비 프로그램을 수행한 집단들이 의미 있는 향상을 보여주었고, 온라인 인터넷 집단의 향상도가 오프라인 면대면 집단의 향상도에 비하여 손색이 없었다.

표 18. 자신감 척도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오차

	통제집단		오프라인 면대면 프로그램 집단		온라인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평균	22.90	22.82	23.37	26.58	21.94	24.72
표준오차	0.67	0.68	1.08	1.11	1.11	1.14
n	50	50	19	19	18	18

표 19. 자신감 척도의 집단별 차이검증

효과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검사시기	136.16	1	136.16	21.75**
검사시기×집단	101.73	2	50.86	8.12**
오차	525.98	84	6.26	

** $p < .01$

자기주장성에 대한 적응준비프로그램의 효과 타났다.

적응준비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기주장성 척도의 사전점사와 사후점사를 모두 완료한 피험자의 숫자는 통제집단이 47명, 오프라인 면대면 프로그램 집단이 17명, 온라인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이 18명이었다. 이들의 자기조절성 척도의 평균은 표 20과 같다.

자기주장성 점수의 변화에서 세집단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한 통제집단에 비하여 적응준비프로그램을 수행한 집단들이 자기조절성에서 향상을 보여주었고, 특히 온라인 인터넷 집단의 향상도는 오프라인 면대면 집단의 향상도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것으로 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준비프로그램의 효과

적응준비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스트레스 척도의 사전점사와 사후점사를 모두 완료한 피험자의 숫자는 통제집단이 46명, 오프라인 면대면 프로그램 집단이 18명, 온라인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이 18명이었다. 이들의 스트레스 척도의 평균은 표 22와 같다. 스트레스 점수의 변화에서 세 집단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한 결과 통제집단에 비하여 적응준비프로그램을 수행한 집단들이 다른 척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에서 감소경향을 보여

표 20. 자기주장성 척도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오차

	통제집단		오프라인 면대면 프로그램 집단		온라인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평균	31.340	32.574	33.176	36.294	32.611	36.000
표준오차	0.972	1.030	1.616	1.712	1.570	1.664
n	47	47	17	17	18	18

표 21. 자기주장성 척도의 집단별 효과검증

효과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검사시기	220.84	1	220.84	19.73**
검사시기×집단	41.38	2	20.69	1.85
오차	884.23	79	11.19	

** $p < .01$

표 22. 스트레스 척도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오차

	통제집단		오프라인 면대면 프로그램 집단		온라인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평균	25.76	25.28	20.33	17.72	27.67	24.44
표준오차	1.13	1.16	1.80	1.85	1.80	1.85
n	46	46	18	18	18	18

주었는데, 특히 온라인 인터넷 집단의 스트레스 감소는 오프라인 면대면 집단의 감소와 유사한 정도였다.

적응준비프로그램 효과검증의 요약 및 결론

적응준비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6개의 척도를 통제집단, 오프라인 면대면 프로그램 집단, 그리고 온라인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에 실시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목표명료성, 스트레스,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주장성 모두에서 온라인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서는 일반적인 향상을 보여주었고, 오프라인 프로그램 집단에 비해서는 거의 유사한 향상도를 보여주었다.

우선 목표 명료성 측면을 보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온라인 집단과 오프라인 집단의 척도점수가 사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온라인 프로그램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공히 조기유학생들의 목표명료성을 증가

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온라인 프로그램을 받은 집단의 사전사후 점수비교를 보면 오프라인에 비하여 전혀 뒤지지 않는 점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두번째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를 보면 통제집단과 오프라인 상담집단, 온라인 상담집단 모두 사전점수에 비하여 사후점사에서 점수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나치게 쉬운 과제를 택하고자 하는 경향에서 좀 더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표 16에 제시된 숫자에 나타나듯이 통제집단이나 오프라인 집단에 비하여 온라인 집단의 변화의 상승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효능감의 경우는 오프라인 집단의 변화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부분으로 오히려 온라인 프로그램을 받은 집단의 변화가 급격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조절성의 부분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의 경우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온라인 프로그램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의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영역으로 표 18에 나타나듯이

표 23. 스트레스 척도의 집단별 차이검증

효과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검사시기	149.93	1	149.93	11.76**
검사시기×집단	61.72	2	30.86	2.42
오차	1007.43	79	12.75	

** $p < .01$

통제집단의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반하여 프로그램 처치를 받은 집단은 모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받은 집단이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받은 집단과 증가의 비율이 유사한 것은 위의 다른 변인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직접 면대면 프로그램에 결코 뒤지지 않는 효과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자기주장성의 경우도 통제집단에 비하여 온라인 집단과 오프라인 집단의 사전사후 점사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프로그램이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유사한 효과성을 보였는데 이는 자기주장성을 훈련할 때 보통의 경우처럼 직접 사람을 앞에 놓고 연습을 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어떤 것이 자기주장인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어떤 반응이 적절한 것인지를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표 20 참조).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의 경우는 표 22에 나타나듯이 통제집단의 경우는 거의 사전점사와 사후점사의 차이가 없었는데 반하여 온라인 집단과 오프라인 프로그램 처치를 받은 집단들의 경우 유의미하게 스트레스가 감소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 역시 다른 온라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하여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면대면 집단상담과 유사한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작하여 시험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조기유학을 준비중에 있는 학생들의 목표의식을 명료화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크며,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도전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할 조기유학생의 도미 기간별 프로그램에서도 온라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낙관

적으로 기대 할 수 있게 해주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사료된다.

전체 논의

어떤 사람이든지 이문화를 접했을 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특히 초기 적응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Ward & Kennedy, 1996; Ward, Okura, Kennedy, & Kojima, 1998) 이는 문화적 습관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으로, 개인주의 문화권을 대표하는 미국과 집단주의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한국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시각(Triandis, 1995), 개인에게 요구되는 가치, 생활태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Markus & Kitayama, 1991; 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등에서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청소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갑작스런 문화차이를 경험하게 되면 좌절과 자신감의 상실, 자신에 대한 회의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적절히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원래 목적하고 있던 학업성취를 달성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기본적인 문화적응에 실패한다면 본인이 목적하였던 목표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체감 혼미, 가치관 혼란 등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부를 하러 떠난 조기유학생의 경우 원래 목표한 바는 학업적인 성취이지만 그 이전에 본인이 문화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유학 성패요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조기유학생들에 필수적인 사회문화적 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 1에서는 조기유학생들의 상담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 및 분야를 파악하였고 연구 2에서는 파악된 상담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 및 분야에 따라 인터넷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실행하고 그 효과를 비교검증하기 위하여 직접 면대면 프로그램을 받은 집단 및 아무런 프로그램 처치도 받지 않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연구 2의 결과에 나타나듯이 온라인 적응촉진 프로그램의 효과가 통제집단에 비하여 확실히 효과가 있었으며 직접 면대면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의 효과와 거의 유사하거나 또는 오히려 빠른 향상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조기유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상담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산출된 본 연구의 의의는 조기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상담프로그램의 효용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조기유학생을 위한 인터넷 상담이 면대면 방식에 의한 전통적인 상담방법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 상담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기유학생들의 적응을 위해 상담 개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문제영역들에서 적절한 시기의 상담개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대면하여 대화를 통하여 상호작용을 해야 하거나 또는 직접 모여서 상담을 해야 하는 전통적 상담 방식으로는 실제 프로그램 실시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통적인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퍼져있는 많은 조기유학생들에게 직접 면대면 상담을 받은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지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인터넷 상담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는 첫째, 현지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위기개입으로 신속한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고, 둘째, 초기 적응이나 이후 적응에서 언어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상담의 개입에 의해 도울 수 있으며, 가족들과의 상담으로 가족들의 적절한 역할 및 대처방식을 탐색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넷째 인터넷 상담, 교육프로그램이 현지 학생들이나 국내 가족들을 지원하는 지지적인 지원체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조기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은 반드시 조기유학생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법은 없다. 조기유학생이 아닌 다른 일반 상담에서까지 인터넷 상담을 확대한다면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적 소요를 가지고 직접 면대면 상담과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역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프로그램은 현지에서 문화적응을 하는 단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구성내용으로 하여 제작된 문화적응 사전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타 문화적응 사전 준비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첫째 타문화 적응의 준비단계에서의 교육프로그램 실행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타 문화권에 이미 들어가서 적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개개인이 실질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에 따라, 사례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입하는 상담이 요구되는 시기인데 비해 타문화 준비단계에서는 타문화 적응단계에서 예상될 수 있는 공통문제들을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실행함으로써 사전 준비를 돕고 이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초기 적응단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시사하는

점은 타문화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보다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할 때 타문화 사전 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증가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타문화 적용에 성공한 집단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나 실패집단을 구별하여 어떤 요인들이 문화 적용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셋째 타문화 적용 준비단계에서의 교육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실제 타문화 적용과정에서는 상담 중심의 개입이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의 상담개입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개입의 효과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많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는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좀 더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비교집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들이 진정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아니라 단순히 유학과 관련된 정보 및 유학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위약효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본 프로그램과 함께 유사한 다른 속성을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비교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둘째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피험자들의 문제이다. 조기유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는 거주 기간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즉, 금방 미국에 도착한 학생들과 미국에서 2-3년을 보낸 학생들과는 심리적 사회적 상태가 당연히 다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조기유학생이 아니고 조만간 떠날 예정이면서 아직 유학을 떠나지 않은 학생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미국에서 좀 더 오랜 기간 머문 학생들의 경우 또는 귀국 유학생의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만큼 크게 나타날 수 있을지

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향후 1년간 유학을 떠나서 6개월 이내의 청소년, 1-2년의 청소년, 3-4년의 청소년 등 다양한 기간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예정에 있다. 그 효과검증이 끝난다면 인터넷 상담프로그램의 효과가 도미 시기와 관련없이 모든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나타날지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아영 · 차정은 (1996). 자기효능감의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1-64.
- 김의철 (1997). 한국청소년의 가치체계. 한국청소년문화-심리사회적 형성요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97-8.
- 박윤창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선일보. 2002년 7월 30일자.
- 최해림 (1986). 한국 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 행동적 상담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Abadzi, H. (1980). The use of multivariate statistical procedures in international student admission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1, 195-210.
- Agarwal, V. B. & Winkler, D. R. (1985). Migration of foreign students to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6, 509-522.
- Akka, R. (1967). The middle eastern student on the American campu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51, 251-522.

- Alberti, R. E. (1977). *Assertiveness: Innovations, Applications, Issues*. San Luis Obispo, California: Impact.
- Anderson, C. S. (1982). The Search for Social Climate. A Review of the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2(Fall), 368-420.
- Bacon, W. F., & Ichikawa, V. (1988). Maternal expectations, classroom experiences, and achievement among kindergartner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uman Development*, 31(6), 378-383.
- Bannai, H., & Cohen, D. (1985). The passive-methodical image of Asian American students in the school system. SSR, Volum 70, No. 1. 79-81.
- Beane, J. A., & Richard P. Lipka (1984). *Self-Concept, Self-Esteem, and the Curriculum*. Allyn and Bacon, Inc, Boston.
- Bogardus, E. (1968). Comparing racial distance in Ethiopia, South Africa and the United State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62, 149-156.
- Brophy, J. E., & Thomas L. Good (1974).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Causes and Consequence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Chen, G. M. (1994). Self-disclosure and Asian students' abilities to cope with social difficultie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Psychology*, 127, 603-610.
- Constantinides, J. (1992). Acade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D. McIntire and P. Willer (Eds.), *Working with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 on American campuses* (pp. 1-25).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tudent Personnel Administrators.
- Cook, E. P. (1984). Students' perceptions of personal problems, appropriate help sources, and general attitudes about counsel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 139-145.
- Delphine, M. E. & Rollock, D. (1995). University alienation and African-American ethnic identity as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knowledge about, and likely use of psychological servic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6, 337-346.
- Ebbin, Allan J.; Blankship, Edward (1988). Stress related diagnosis and barriers to health care among foreign students: Results of surve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1988 May: Vol 36(6): 311-312
- Fukuyama, M. A. & Greenfield, T. K. (1983). Dimensions of assertiveness in an Asian-American student pop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429-432.
- Guanipa, C. (1998). *Culture Shock*. San Diego State University.
- Gudykunst, W. B., Hammer, M. R., & Wiseman, R. L. (1977). An analysis of an integrated approach to cross-cultural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 99-110.
- Heikinheimo, P. S., & Shute, J. C. M. (1986). The adaptation of foreign students: Student views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7, 399-406.
- Heine, S., Lehman, D., Marjus, H.,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766-794.
- Hurh, W. M. (1977). *Comparative Study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 A Typological Approach*. San Francisco: R and E. Research Associates, Inc.

- Hurh, W. M., & K. C. Kim. (1991). Family-Kinship System of Asian Immigrants: A Case of Korean Immigrants' Extended Conjugal Famil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ugust, 1991, Cincinnati, Ohio.*
- Hurh, W. M., & Kim, S. (1993). Generation Differences in Korean Immigrants' Life Conditions in the United States. *Sociological Perspectives, 36*(2), 257-270.
- Jensen, I. K. K., & Jensen, J. V. (1983). Cross cultural encounters: The newly arrived asian student. *College Student Journal 17*(4). 371-377.
- Kim, K. C., Hurh, W. M. (1993). Beyond assimilation and pluralism; syncretic sociocultural adapt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S. *Ethnic and Racial Studies, 16*(4), 696-713.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e, S. J. (1991). Ethnic Identification and Social Interaction: A Study of Asi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in Philadelphia. Doctoral dissertation,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Leong, F. T. L. & Sedlacek, W. E. (1989). Academic and career needs of international and United States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0*, 106-111.
- Leong, F. T. L. (1984). *Counseling international students. Searchlight plus: Relevant Resources in high interest areas*. Ann Arbor, MI: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 Liberman, K. (1994). Asian student perspectives on American university instruction.
- Lin, J. C. G., & Yi, J. K. (1997).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Issues and Program suggestions. *College Student Journal. 1997 Dec, 31*(4), 473-479.
- Maha, G. E. (1994). Health survey of new Asian and African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12*, 303-310.
- Markus, H. R., & Kitau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cMichael, A. J., & Hetzel, B. S. (1974). Patterns of help-seeking for mental illness among Australian university students: An epidemiological stud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8* pp.197-206
- Miller, T. K. & Winston, R. B., Jr. (1990). Assessing development from a psychosocial perspectives. In D. G. Creamer (Eds.), *College Student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for the 1990s* (pp. 99-126). Alexandria, VA: American College Personnel Association.
- Min, P. G. (1984). From White-Collar Occupations to Small Business: Korean Immigrants' Occupational Adjustment. *The Sociological Quarterly, 25*, 333-352.
- Offer, D., & Spiro, R. P. (1987). The disturbed adolescent goes to college.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35*, 209-214.
- Ogbu, J. (1987). Variability in minority school performance: A problem in search of an explanation.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18*, 312-334.
- Ogletree, R. J. (1993). Sexual coercion experience and help-seeking behavior of college women. *Journal*

- of *American College Health*, 41, 149-153.
- Ojano Sheehan, O. T. & Pearson, F. (1995). Asian international and American students' psycho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6, 522-529.
- Oliver, J. M., Reed K. S., Katz, B. M., & Haugh, J. A., (1999). Students' self-reports of help-seeking: the impact of Psychological problems, Stress, and Demographic variables on utilization of formal and informal support.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9(2). pp. 109-128.
- Open Doors, 1997-98. (1998). Report on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New York: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 Ownbey, S. F. & Horridge, P. E. (1998). The SUINN-LEW Asian self-identity acculturation scale: Test with a non-student, Asian-American sample.
- Parr, G., Bradley, L., & Bingi, R. (1992). Concerns and feelings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 20-25.
- Pedersen, P. (1976). The field of intercultural counseling. In P. Pedersen, W. J. Lonner, & G. Draguns (Eds.), *Counseling across Cultures*. Honolulu: University Press of Hawaii.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uben, B. D. (1977). Guidelines for cross-cultural communication effectiveness. *Group & Organizational Studies*, 2, 470-479.
- Rule, W. R. & Gandy, G. L. (1994). A thirteen-year comparison in patterns of attitudes toward counseling. *Adolescence*, 29, 575-589.
- Spitzberg, B. H. (1989).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 theory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the intercultural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3, 241-268.
- Stafford, T. H., Jr., Marion, P. B., & Salter, M. L. (1980). Adjust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National Association of Student Personnel Administrators Journal*, 18, 40-45.
- Sue, D. W. & Sue, D. (1977). Barriers to effective cross-cultural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20-429.
- Sue, S. & McKinney, H. (1975). Asian Americans in the community mental health care syste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5, 111-118.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orton, New York.
- Triandis, H., (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Tsujimura, A. (1987). Som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way of communication. In D. L. Kincaid (Eds.), *Communication Theory: Eastern and Western Perspective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U.S. Bureau of the Census. (1992).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12th ed.). Washin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ard, C., & Kennedy, A. (1996). Crossing cultu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nd saciocultural dimensions of cross-cultural adjustment. In J. Pandey, D. Sinha, & D. Bhawuk (Eds.), *Asian contributions to cross-cultural psychology* (pp. 289-306). New Delhi, India: Sage.
- Ward, C., Okura, Y., Kennedy, A., & Kojina, T. (1998). The U-curve on trial: A longitudinal study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2,

277-291.

Yum, J. O. (1988). The impact of Confucianis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patterns in East Asia. *Communication Monographs*, 55, 374-388.

1 차원고접수일 : 2002. 9. 15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2. 3

최종게재결정일 : 2002. 12. 9

Internet Counseling Program to Promote the Psycho-Social Adaptation and Reverse Adaptation of Korean Child and Adolescents who Temporarily Reside in the United States and Return back to Korea

Young-Sook Park¹ Kwangbai Park² Sang-Chin Choi³ Antony Marsella⁴ Juhan Kim⁵

¹Ewha Woman's University ²Chungbuk National University

³Chung-Ang University ⁴University of Hawaii ⁵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research, we developed and tested an internet counseling program for social and cultural adaptation of Korean adolescent international students (KAIS) in U.S. Adaptation needs of those students were assessed in the Study 1. Survey and interview data from the Study 1 showed that Korean adolescent international students in U.S. experience adaptational difficulties mostly in such areas as school, language, culture, law, and family relations. Based on the need assessments from the Study 1, an internet counseling program was developed and its effects were tested in the Study 2. In Study 2, a group of 36 KAISs were assigned into the on-line counseling condition in which the subjects completed 12 sessions of internet counseling program. Another group of 17 KAISs were assigned into the off-line condition in which the same counseling program was administered in the traditional face-to-face sessions. The third group was a control group of 47 KAISs to whom no program was administered. All three groups of the subjects were tested twice (pre-test and post-test) with several psychological instruments to measure goal ambiguity, activeness in challenge seeking, self-regulation, self-competence, assertiveness, and stress control. The on-line group and the off-line group alike showed marked improvements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as measured on the post-tests compared with those on the pre-tests. The control group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tests. It was concluded that the on-line counseling program is as effective as the traditional face-to-face counseling method for the improvement of psychological functioning that is necessary for successful adaptation of KAISs.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Key Words : studying abroad, internet counseling program, cultural adaptation